

## [사설] 귀감이 될 강릉대 공부벌레들의 반란

중앙일보 | 입력 2007-03-02 00:57:18

강릉대 전자공학과가 지난 2년 새 24명의 졸업생을 미국 명문대학원 석.박사 과정에 합격시켰다고 한다. 미국 대학원 진학만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명색이 국립대이지 원서만 내면 거의 들어갈 수 있던 세칭 '삼류대'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학생을 우수 대학원에 합격시킨 것은 믿기 어려운 쾌거가 아닐 수 없다. 게다가 미국에서 석.박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모두 미국 인텔연구소.삼성전자.LG전자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벼랑 끝에 서 있는 많은 지방 대학에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한 줄기 복음이다. 특히 포스텍 수석 합격.졸업자가 의대에 편입할 정도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.

강릉대 전자공학과 사례는 학교의 노력이 학생들의 장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지, 적절한 성취 동기 부여가 얼마나 인간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.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헌신과 그에 부응한 학생들의 노력은 눈물겹다. 교수들은 "어차피 취직도 안 될 텐데 공부하면 뭐하느냐"는 학생들의 열패감(劣敗感)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. "대학 입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"이라는 말로 학생들을 이끌었다. 학생들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공부했다. 휴강을 하면 반드시 다음날 밤 보충을 했고 수업을 빼먹지 않으려고 시험도 오후 7시부터 치렀다. 24시간 개방하는 학과 독서실에서 밤낮없이 원서와 씨름했다. 땀은 곧 결실을 보았다. 전공 실력은 물론 200점대였던 토익 점수도 평균 800점까지 치솟았다.

미국 유학에 집중한 것은 학벌의 굴레를 벗기 위한 방법이었다. 그만큼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는 견고하다. 하지만 그런 현실만 탓해서는 얻을 게 없다. 학벌주의를 극복하려면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. 학벌보다는 실력이라는 사실이 현장에서 하나 둘 입증되면서 학벌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. 강릉대 전자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. 이제 전국의 많은 '이류' '삼류' 대학들이 화답할 차례다.

